

드라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속 인공지능의 의미 연구

Study on Signific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V show, *Person of Interest*

이현정

중앙대학교 융합교양학부

Hyunjung Rhee(bonoanimi@ca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2016년까지 방영되었던 드라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를 하나의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다른 인공지능 관련 작품들과 차별화된 특성을 찾고자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픽션물에 자주 등장하는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을 작품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작품이 시대가 전개되면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주체들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여, 주제별 벌어지는 사건양상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작품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해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 잠재적 지능 대확산, 기계에 대한 맹신-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의미에 집중하여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는 작품이 '어떤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에 앞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 중심어 : | 인공지능 | 로봇공학 3원칙 | 인공지능 내러티브 | 인공지능 세계관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terpreting the view of current media by artificial intelligence(AI) with the case of a TV show *Person of Interest*, which was broadcasted until 2016 in US. In this study, we first attempted to find how AI reflects the three laws of robotics, which often appear in Science Fictions. In addition, we paid attention to how the society look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manipulator of the AI, and as a result we derived the distinguishes of the show from other content dealing with robots or AI in terms of narrative. Through this study, we classified the messages in accordance of AI into three categories- importance of data sovereignty, potential of intelligence explosion, and blind faith in high technolog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show emphasizes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 that should be possessed as a citizen who meets the era of AI prior to raising issue of 'w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should be developed for our convenience?'

■ keyword : | Artificial Intelligence | Three Laws of Robotics | AI Narratives | Worldview of AI |

* 본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7S1A6A3A01078538)

접수일자 : 2018년 08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9월 18일

수정일자 : 2018년 09월 04일

교신저자 : 이현정, e-mail : bonoanimi@cau.ac.kr

I. 들어가며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영화나 TV시리즈는 머나먼 미래의,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의 세계를 그리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동안 인공지능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영화 <매트릭스(Matrix, 1999)>, <터미네이터(Terminator, 1984)>, <아이로봇(I, Robot, 2004)> 등과 같이 기계가 인간과 대립하며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거나, 영화 <바이센테니얼맨(Bicentennial Man, 1999)>, <에이아이(AI, 2001)> 등처럼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인간이 되는 것을 꿈꾸는 로봇을 그리는 작품들에 주제가 한정된 편이었다. 이들 작품에서 인공지능은 대상을 외계인으로 대체해도 스토리상 큰 무리가 없을 만한 정도의 공상적인 의미만을 지녔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의 선구자 격인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1982)>, <터미네이터>에서 언급된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이미 과거가 되었거나 아주 가까운 미래로 다가와 버린 현재,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그보다 훨씬 다각화되고 현실적으로 변화하였다. 영화 <그녀(Her, 2013)>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한 인물이 자신을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맞춰주는 인공지능에게 깊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화 <엑스마키나(Ex Machina, 2015)>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거짓말도 하고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하는 수준에 이르는 수준이 되었을 때,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런가하면 영화 <트랜센던스(Transcendence, 2014)>에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인물이 인공지능을 통해 부활하여 제 2의 자아를 가지게 된다면 ‘그를 이전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픽션물들이 공상 과학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의 반영체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현실성을 바탕으로 다룬 작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Person of Interest)>를 통해 미디어가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아이작 아시모프(Issac Asimov)의 로봇 3원칙이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작품에서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주체가 시준이 바뀌면서 함께 변화하는 양상에 주목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그려지는 작품의 세계관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로봇, 인공지능 등을 다룬 이전의 작품들과의 차별화된 특징을 발견하고, 이러한 특징을 통해 관객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로서 본 연구는 작품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현재의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미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II.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별성

1. 작품의 개요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는 미국CBS 채널에서 방영되었던 TV 시리즈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시즌에 걸쳐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테러 이후, CCTV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인지한 작가의 기억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국가보안 전문 기자인 Shane Harris의 저서[1]와 전직 NSA(National Security Council: 미 국가안보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 중앙정보국), 기술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바탕으로 내용의 현실가능성을 높였다[2].

작품은 시민들의 일 거수, 일 투족을 담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범죄와 연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SSN(Social Security Number: 미국의 개인 신원 번호)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The Machine(이하 머신)’을 바탕으로 세계관을 형성한다. 작품의 중심이 되는 머신은 테러를 감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 인공지능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그램은 테러와 관련된 것 이외의 모든 정보들은 지워버리도록 설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작품의 주인공이자 머신의 개발자인 Harold Finch(이하 해롤드)는 비밀리에 지워지는 정보들을 따로 수집하여 머신을 통해 한 명이라도 범죄에 의한 희

생자를 줄여보고자 결심하게 된다. 머신은 개인의 통화 내역, 이메일, CCTV 동선 등 모든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스스로 분석하며, 그 결과로서 범죄 연루 가능 대상자를 제공한다. 그러나 머신은 그 인물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해롤드는 인공지능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 초래될 위험한 미래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권한을 머신에게서 배제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 이유로 머신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는다. 대신 해롤드는 또 다른 주인공인 전직 CIA요원 John Reese(이하 존)와 팀을 이루어 머신이가 지목한 인물의 주변을 조사하고, 그들의 인간적 판단에 의거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하는 활동을 한다.

작품의 전반적인 전개방식은 시즌 전반에 걸쳐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 머신이 누군가의 SSN을 알려주면, 해롤드가 변호의 대상에 대해 조사한 기록을 존을 비롯한 파트너들에게 전달한다. 이들은 대상 주위를 살피면서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는지 감지하고, 범죄로부터 대상을 지켜내며 사회적 정의를 구현한다. 그러나 시즌별로 다른 특징과 성격의 적대자가 등장함으로써, 작품은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을 다각도로 짚어낸다.

2.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3원칙

연구의 한 분야로서 ‘인공지능’의 시작은 1950년대 다트머스(Dartmouth) 대학 교수들의 소규모 연구회 프로젝트에서 기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간과 같이 일종의 사유를 하는 로봇에 대한 상상력과 대중의 관심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물론 기계가 진정한 ‘인공지능’으로서 추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직관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두뇌에 가까운 결과물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딥러닝(Deep Learning) 시스템에 의해 개발된 시기로,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3],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시대를 그려왔다. 대표적으로 SF소설의 거장이자 로봇공학(Robotics)이라는 명칭을 창안한 작가로 알려진 아이작 아시모프는 그의 1940년대 발표한 작품들을 통해 로봇공학의 세 가지 원칙(Three Laws of

Robotics)을 언급하였다[4]. 이 세 가지 원칙들은 소설 속에서 설정된 개념이 뿐이지만,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 <아이, 로봇>, 록맨 X만화 시리즈 등 로봇을 소재로 다룬 다수의 문학,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작품 속 세계관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인간이 위협에 처해 있도록 방조해서도 안 된다.
- 원칙 2. 로봇은 인간이 내린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지만, 그 명령이 첫 번째 법칙과 상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원칙 3.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에 상충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시모프는 이후 그의 1985년 작 *Robots and Empire*를 통해 위 원칙의 상위 개념이 되는 0번째 원칙을 언급하였다[5]. 해당 원칙은 가장 나중에 등장한 내용이지만 위 세 가지 원칙에 앞서는 개념으로 이전에 가졌던 ‘인간의 도우미로서’ 로봇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칙 0.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인류가 위협에 처해 있도록 방조해서도 안 된다.

0번째 원칙에서 아시모프는 인간(human being)이라는 단어 대신 인류(humanity)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로봇이 인간의 차원을 넘어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드라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인 머신 역시, 인간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닌 존재다. 작품에서는 아시모프의 원칙들을 따르는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위배되었을 때 어떠한 위협에 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에피

소드들을 통해 전달한다. 작품은 다섯 시즌에 걸쳐, 첫 번째 원칙부터 뒤늦게 제시된 0번째 원칙의 중요성을 차례로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시즌에서 머신은 따라 시민들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의 위험이 가장 높은 인물의 넘버를 제공한다. 머신은 아시모프의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선이건 악이건 사람이란 누구나 그의 판단으로 인해 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넘버만을 기계적으로 제공한다. 머신은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후에 적대적 인공지능인 Samaritan(이하 사마리탄)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의 활동은 제약적이다. 자신으로 인해 한 인간이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1원칙에 맞게, 머신은 넘버의 대상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헤롤드와 존은 종종 가해자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그를 위험에서 구하고 후회하는 장면들이 연출된다. 그러나 작품은 가해자를 이후 시즌에 헤롤드 등을 도와주는 역할로 재등장시킨다. 물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도움을 주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작품은 이러한 가능성을 연출함으로써,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로봇이 첫 번째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시즌 2에서는 두 번째 원칙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과거 회상장면에서 헤롤드는 머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카지노를 방문한다. 머신은 카지노 CCTV를 통해 헤롤드의 게임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에게 유리한 패를 알려준다. 머신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는 헤롤드는 어느새 그 행운에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문득 제 정신을 차린 헤롤드는 머신이 제공하는 답의 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며, 결국 벌었던 금액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만다. 그는 머신이 자신의 편에 서게 되면 자신은 큰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대로 자신과 게임을 하는 사람의 돈을 잃게 만들어 그를 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한다. 누군가에게 치우친 도움이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작품은 두 번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작품의 세 번째 시즌부터는 원칙과 반대되는 인공지

능인 사마리탄이 등장하여, 인공지능에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점을 연출한다. 머신과 다르게 사마리탄은 그를 구동하는 데시마라는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그에 어긋난 사람을 제거한다. 로봇공학의 원칙에 따르는 머신은 인간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를 입히는 사마리탄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다. 사마리탄은 머신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들을 도구로 활용하여 그의 위치를 추적하고, 결국 시즌 4 후반에 머신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머신은 사람의 보호가 자신의 보호보다 앞서야 하는 세 번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사마리탄보다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로봇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마리탄만이 작동하는 시즌 5의 세상에서 인간은 사마리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되는 우매한 존재가 된다. 사마리탄은 인간을 보다 정교하게 통제하기 위해 전염병을 퍼뜨리는 등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헤롤드에 의해 되살아난 머신이 원칙 0에 따라 네트워크 바이러스를 퍼뜨려 사마리탄과 자신을 함께 제거하며 인류를 보호하는 것으로 작품은 끝나게 된다. 작품의 결말은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 사라지는 편이 오히려 인간에게는 더 유익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인공지능과 작동 주체

작품은 로봇공학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작동하는 주체의 변화에 따라 맞이하게 될 사회의 모습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은 어느 천재 프로그래머의 개인 컴퓨터에서 작동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에서 작동될 수도 있으며, 자금이 풍부한 기업에서 작동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각각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연출한다. 작품에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주체는 머신을 조종하는 천재 프로그래머 헤롤드, 데시마 기업을 통해 사마리탄을 조종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데시마의 조력을 바탕으로 자의적인 작동을 하게 되는 인공지능 사마리탄이다.

사마리탄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주체는 헤롤드가 유일하다. 다행히 헤롤드는 인간에

대해 답답하리만큼 동등한 가치판단의 잣대를 가진 인물이다. 심지어 시즌 3 후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테러집단인 자경단(vigilance)에 의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정부 관계자, 데시마 회장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헤롤드는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헤롤드의 다분히 중립적인 캐릭터 덕택에 사마리탄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에 의해 작동되는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만이 연출된다. 머신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찾아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정화가 필요한 사회의 부조리함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다. 머신은 시즌 1과 2에 걸쳐 드러나는 부패한 뉴욕경찰과 갱단들의 협력관계를 찾아내 이들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악순환을 끊어낸다. 결과적으로 시즌 1과 2는 인공지능의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여준다.

시즌 3에서는 CIA, NSA 등 범정부기관이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사마리탄의 백업 파일을 획득하기 위한 분투가 그려진다. 이들 정부기관은 사마리탄의 이용에 세계 모든 시민의 정보를 의도에 따라 손쉽게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자경단에 의해 정부는 사마리탄 프로젝트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자, 결국 사마리탄은 IT 대기업인 데시마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데시마는 사마리탄을 통해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주체다. 그렇지만 시즌 3까지 데시마에 의해 구동되는 사마리탄은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데시마는 아무리 큰 자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기업일 뿐이므로, 그들에게 일반 시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데시마는 정부를 교묘히 설득하여 시민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로를 여는 데 성공한다. 이와 같이 시즌 3는 인공지능이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주체들 간의 싸움에 집중한다.

시즌 4에서 정부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는 동시에 사마리탄의 능력을 얻고자 데시마와 결탁한다. 사마리탄은 시민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감지되는 테러의 가능성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이렇게 시즌 4의 전반에서 인공지능인 사마리탄을 작동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그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마리탄을 통해 세계 시민을 감시하고,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정부가 인공지능을 작동하는 주체로서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은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적대되는 상대를 죽이거나 압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에 의해 정부의 빅브라더화가 시작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시즌 4에서 사마리탄은 서서히 자체적인 세력을 키워가고, 결국 시즌 5부터는 기체가 자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시민을 통제할 만큼 큰 힘을 가지게 된다. 사마리탄이라는 주체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세계에서 그는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한다. 때문에 사마리탄에 의해 인간은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쉽게 활용되고 버려질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된다.

이렇게 작품은 인공지능을 작동하는 주체의 변화에 따라 인류가 경험하는 세계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서 작품은 인공지능이 일반 시민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동안 많은 SF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은 인류를 위협하는 적대자로서 나타나기도 하고[6], 기계를 통해 인간 본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작품들도 있었다[7]. 대부분의 작품들이 인간과 기계의 관계적 측면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8],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는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환경의 다양성을 연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범위에 대해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단원에서 작품의 차별화된 특징을 통해 인공지능에 관하여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III.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

1.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는 인공지능을 개인 사생활 데이터의 집합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

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 작품은 PRISM 이전부터 제작·방영이 되고 있었지만, 마치 사건을 예견한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사건 이후 보다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9]. 이 작품은 우리의 개인 정보가 손쉽게 수집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가 학습을 통해 인간의 제어를 벗어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었을 경우 마주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작품은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개인의 데이터가 제 3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 상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시즌 3의 Ep. 3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매매하는 기업 CEO가 그의 은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는 등의 곤욕을 치르는 사건을 그린다. 이 사건의 가해자의 배경은 딸의 죽음에 기업이 관련되었음을 인지하고 양심을 품은 것으로 설정되었다. 평범한 인물인 가해자의 딸은 과거 스톡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런데 스톡커를 피해 이사를 갈 때마다 스톡커는 그 기업을 통해 그녀를 추적했고, 결국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른 예로서 시즌 4의 Ep. 19에서는 선진적인 기업의 CEO 솔레이만 칸의 이메일, 의료 이력, 카드정보, 법인계좌 등 모든 개인정보들이 해킹을 당해 곤경에 처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는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주주총회에서 CEO직을 박탈당한다.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폭락으로 그가 주식을 가진 모든 회사들이 전부 몇 초 만에 도산하고, 그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다. 이와 같이 작품은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제어권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졌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 기기의 확산은 데이터의 빠르고 쉬운 수집을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 기기에 의해 매우 광범위한 정보들이 매일 실시간으로 생산·수집되고 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만을 통해서만도 개인 사용자의 방문기록 뿐 아니라 사용자 PC에 대한 세부 정보(IP address, 설치 프로그램, 로그 기록 등)가 전송된다[8]. SNS를 통해서서는 본인이 올린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 정보부터 댓글, 게시물 조회여부 등 다른 사람들과

의 교류 정보들이 모두 수집된다. 휴대폰을 통해서서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통화 내역, 문자 내역, 통화 시간 등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구매 내역 및, 구매 시간, 위치 정보, 신용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수집된다[10]. 건물들의 안팎에서는 CCTV, 차량용 블랙박스, ATM 기계의 카메라 등이 사람들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촬영한다.

실제로 2013년 미국에서 일어난 PRISM 사건은 개인 데이터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당시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기사화되었던 내용은 미국 통신회사 Verizon에서 교신된 모든 시민들의 통화 기록 및 정보를 NSA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이었다[11]. 이 사건으로 기업을 믿고 개인 정보를 제공한 개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내에서도 쇼핑 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온라인 교육기관 등이 해킹되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거의 매년 발생해왔다[12].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각종 기관에서는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용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13]. 이와 같이 대기업들도 고객의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실 예들은 개인 정보사용에 대한 주권을 고객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함에 대한 타당성을 지지한다.

2. 잠재적 지능 대확산

구글 엔지니어링의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그의 저서에서 2045년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이 도래할 것을 예측하였다[14]. 특이점은 수학, 물리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제어가 불가할 만큼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점을 의미한다. 커즈와일은 기술혁명에 의해 특이점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였으며, 다시 말해 인간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기술 진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옥스퍼드 대 교수,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특이점대신, 지능 대확산(intelligence explo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15]. 보스트롬이 설명하는 지능 대확산은 인간의 제어를 넘어선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의 등장으로 인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계 자의적인 기술발전을 만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는 머신과 사마리탄을 통해 보스트롬이 설명한 초지능을 설명한다. 물론 시즌 4까지의 머신은 헤롤드에 의해 범죄 연루 가능성만을 제공하고 그 외의 정성적 판단은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초지능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즌 5에서 사마리탄과 맞서기 위해 자의적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으로 거듭나게 된다.

머신은 엄청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능 좋은 컴퓨터와 초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력자원인 충분한 전기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헤롤드는 대량의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폐쇄된 시립도서관에서 머신을 구동한다. 시즌 3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사마리탄에게 머신의 존재와 위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헤롤드 등은 도서관을 폐쇄시키고 만다. 그렇지만 시즌 4에서 이들은 폐쇄된 지하철역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 연결된 전기를 끌어다 머신을 구동한다. 작품에서 머신은 선한 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관객들의 입장에서 머신이 살아남아 어딘가에서 구동될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성능 좋은 컴퓨터와 그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래머, 그리고 충분한 전기가 공급된다면 머신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비밀리에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채집하여 분석하는 머신이나 사마리탄과 같은 초지능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보스트롬도 그의 저서에서 맨해튼 프로젝트에 빗대어 이러한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했다[15]. 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의 주도하에 유럽 및 영국, 캐나다 등의 과학자들이 모여 원자폭탄을 만드는 연구를 비밀리에 실행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다 [16]. 보스트롬은 맨해튼 프로젝트도 선견지명이 있는 과학자들에 의해 정부가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기술에 대한 집행을 행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만약 정부가 해당 기술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면, 개인이 해당 기술사용의 결정권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만약 커즈와일이 예견한 바와 같이 미래의 어느 날,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기술 진보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기술 진보가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예상치도 못했던 누군가의 컴퓨터 속에서 일어난다면 세상은 혼돈 속에 놓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술 진보는 대량의 일반 시민들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며, 어느 누구도 미래 기술의 폭발적 진보가 만든 도박에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활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마리탄은 시즌 초반까지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따라 테러리스트 및 범죄 소탕 목적으로 기능하였지만 점차 자의적으로 진화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간다. 시즌 5의 Ep. 8에서 사마리탄은 의도적으로 전염병 바이러스를 퍼뜨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질병통제센터는 백신을 맞을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DNA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결국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 의심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DNA정보를 내어준다. 결과적으로 사마리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질병통제센터를 합리적인 이유로 이용한 셈이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초지능이 개발되는 경우, 정부도 국민을 지켜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지하지 못한 채 초지능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3. 기계에 대한 맹신

다큐멘터리 영화 <시티즌포(Citizenfour, 2015)>에서는 미국의 보안관련 기자이자 해커이기도 한 제이콥 애플바움(Jacob Appelbaum)의 ‘월가 시위’ 참여자 보안교육 강연 장면이 짧게 소개된다. 해당 강연에서 그는 청중들에게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하라는 광고를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성(linkability)’에 대한 연설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통카드와 신용카드의 데이터를 연결하면 한 개인의 행선지, 이용 차량, 이용 시간, 구매 내역, 구매처 등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합하여 하나의 메타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 우연찮게 우리의 데이터가 범죄의 시점이나 장소와 겹치게 되는 경우 그 데이터에 의해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추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작품에서도 애플바움의 연설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

한다. 시즌 3의 Ep. 22에서는 자경단의 리더인 콜리어라는 인물이 자경단에 합류한 배경에 대해 묘사한 장면이 그것이다. 평범한 인물이었던 콜리어의 형 제시는 어느 날 테러위협인물로서 지목되어 영장도 없이 FBI에 끌려간다. 그가 단지 테러리스트를 친척으로 둔 아랍계 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이 여러 장소에서 포착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제시가 아랍계 친구를 자주 만났던 이유는 그들이 알콜중독센터서 맺어준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해당 정보는 정부의 테러리스트를 진단하는 기계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FBI는 기계의 결과만을 신뢰하여,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훌륭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지만 그만큼이나 다양한 잘못된 판단, 실수, 부도덕한 행위, 비합리적인 행동 등을 수없이 행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찰과 반성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왔으며, 그러한 모든 것이 인간성의 토대가 되었다. 분명 알고리즘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계는 정량적인 결과물을 생산함에 있어 인간보다 월등한 결과를 생산한다. 그러나 계산적 판단이 누군가를 단정 짓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인간성은 빛을 잃고 만다.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는 매 에피소드마다 우리의 개인 데이터가 인공지능에게는 알고리즘에 따른 분류화를 위한 그저 하나의 분석거리에 지나지 않음을 시사하는 장면들을 반복하여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품은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에도 우리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기계의 분석에 개인정보를 내어주고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인간성과 삶도 기계중심으로 변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IV. 나오며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인공지능을 작동하는 주체들의 생각이 정말 다양하고, 또 각각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헤롤드는 범죄의 위협에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신을 활용하였고, 정부기관은

테러의 위협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사마리탄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마리탄은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제거하고 이상적인 활동만을 하는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초지능이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가야 할 점은, 어떤 경우에서든 인공지능에 의해 개인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나면, 데이터의 주인인 일반 시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 주체에게서 부속물 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헤롤드와 존 까지도 결국 머신이 제공한 넘버 주인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들어가 그를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그들은 데이터를 이용해 일회적인 도움을 줄 뿐 누군가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은 머신에 의해 제공되는 인간성이 완전히 배제된 하나의 넘버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미래의 인공지능은 많은 과학자들이 예견하듯 언젠가는 개발자의 손을 벗어나 자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초지능적인 케도에 오를 수도 있다. 어떤 인공지능은 우리가 느끼기에 충분히 합리적이고 필요한 시스템일 수 있고, 어떤 시스템은 처음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인공지능이 개발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개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인공지능에게 허락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와 ‘당신은 기계와 인공지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작품은 사마리탄이 그랬던 것처럼 사생활을 포함한 각종 개인 데이터들이 특정 인공지능에 부여된 기준에 따라 인간 전체를 평가하는 데 쓰이고, 그 결과물에 의심조차 갖지 않는다면, 인간세계는 인공지능에 결국 종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만약 작품 속의 세계처럼, 개인 데이터를 데이터 주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초지능이 탄생해버리는 미래가 펼쳐진다면, 어쩌면 작품의 결말처럼 차라리 모든 인공지능들이 바이러스에 의해 정지되어 버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1] S. Harris, *The Watchers: The Rise of America's Surveillance State*, Penguin, 2010.

[2] <http://entertainment.time.com/2013/06/11/the-real-government-data-mining-program-behind-the-machine-on-person-of-interest/>

[3] 류성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딥러닝을 중심으로*, 디지에코, 2017.

[4] I. Asimov, *I Robot*, Gnome Press, 1950.

[5] I. Asimov, *Robots and Empire*, Doubleday Books, 1985.

[6] 이수진, “현대 사이언스 픽션 영화의 기호학적 읽기: <터미네이터>의 테크놀로지에 관한 시각적 재현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44호, pp.203-225, 2015.

[7] 김성동, “기술문화시대 인간의 자기 이해 - 영화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대동철학회지*, 제23호, pp.131-155, 2003.

[8] 이다은, “SF 영화 속 인간과 피조물이 사유하는 방식,” *아시아영화연구*, 제8권, 제1호, 2015.

[9] <https://www.newyorker.com/culture/culture-desk/person-of-interest-the-tv-show-that-predicted-edward-snowden>

[10] 브루스 슈나이더, 이현주 역,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원제: *Data and Goliath*), 반비, 2016.

[11] 루크 하딩, 이은경 역,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 (원제: *The Snowden Files*), 프롬북스, 2014.

[12] 김준연, 박강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혁신전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

[13] <http://news.hankyung.com/health/article?aid=201804238361g>

[14] 레이 커즈와일, 장시형, 김명남 역, *특이점이 온다* (원제: *Singularity is Near*), 김영사, 2007.

[15] 닉 보스트롬, 조성진 역, *슈퍼인텔리전스* (원제: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까치, 2017.

[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0043&cid=58941&categoryId=58960>

저 자 소 개

이 현 정(Hyunjung Rhee)

정회원



(MFA)

- 2005년 12월 : Academy of Art University, Computer Arts - Animation(BFA)
- 2009년 5월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Cinematic Arts - Animation
- 2014년 8월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콘텐츠경영(경영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융합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문화예술, 산업생태계, 플랫폼